

만화 《토지》 작가 오세영

걸작 만화 탄생 ... 끝없는 공부뿐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소설 《토지》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다. 드라마와 영화로 리메이크된 횡수를 가려보는 일 또한 불필요할 만큼, 더 이상 어떤 형태로 재생산되던지 소설 《토지》의 아우라에 범접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잘 해야 본전’ 인 맥 빠지는 작업에 누가 또 매진할까 싶었는데 만화 《토지》가 나타났다. 원작의 가치를 만화에 고스란히 담아낸, 독자의 느릿한 관심 앞에 만화가 오세영이 서 있었다.

“작품이 태어나기까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학습만화를 제안한 출판사와 시간과 컴퓨터와 그리고 만화가에 대한 부족한 평가와...”

전5부의 소설을 16권의 만화로 탄생시키는 작업. 그 중 소설 1부에 해당하는 일곱 권을 완성시키는 데만 3년이 넘었다. 고단한 시간의 터널을 뚫고 나온 작가 오세영은 검고 마른 얼굴이었지만 지켜보이진 않았다. 25년 전 소설 《토지》를 읽은 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그리고 싶다’ 생각했던 만화가 지망생의 오랜 꿈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작가다. 유명 작가의 문하생을 거쳐 만화가자로 등단하는 시스템. 스승의 기법을 답습하는 만화계의 관행을 박차고 나온 그는 독학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궜다. 이번 작업에도 소설의 배경이 되는 구한말의 건축, 생활양식 등을 그대로 되살려내기 위해 원작을 수없이 읽은 것은 물론이고 풍속 박물관이 생기면 지방 어디라도 발품을 팔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배웠다. 이렇게 얻은 현장 지식이야말로 누구와 비교해도 월등할 수밖에 없는 그만의 경쟁력이다.

그에게 이번 작품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유럽처럼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을 만화가 갖고 있는 회화적인 언어로 되살린다는 것. 그리고 소설 《토지》의 풍속사적 가치를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로 남긴다는 것이다.

그는 활동 틈틈이 (오세영 - 한국 단편 소설과 만남)과 같이 해방 전후 민중 생활이 드러난 소설 작품을 만화화하는 작업에도 주력해 왔다.

“원작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새로운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형상을 언어로 설명해서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지만 만화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만화의 힘입니다. 소설의 추상성을, 상상으로만 이뤄지는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본 사람들에게

게는 그런 그림을 그려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으로 남겨 놓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만화 《토지》는 구한말 서민들의 치열한 생활상이 그려져 있는 1,2,3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애초 출판사에서 제시한 권수는 총 10권. 그러나 그는 “허술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6권을 추가해 총 16권의 대작을 작업 중이다.

“원작을 그대로 가져다 그리는 것이 충실한 구현은 아닙니다. 만화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 돋보여야 가치가 있는 거죠. 소설은 문자이기 때문에 긴 설명도 받아들여지지만 이미지는 연출을 해줘야 합니다.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그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소리인데... 다행히 박경리 선생님이 1부를 보시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요약을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는 요란 떨지 않으면서 원작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제들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한다. 500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을 그리는 것보다 소설 속 풍경을 구현해 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면서 하동리 풍경을 지도 그리듯 설명해 보였다. 1부를 출간하고 원작자와 만남의 자리에서 박경리 선생은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리얼리즘 만화의 대가라 불리는 그에게도 고민은 많다. 국내 만화계가 좀더 다양화 되어야 한다면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덧붙였다.

“인터넷 만화의 성공으로 단순하고 가벼운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즘에는 분위기 자체가 문화를 상품으로 먼저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키우면 자연히 상품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만화가들도 개성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모이면 울타리가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기반이 단단해 지죠.”

내년 말 완간을 목표로 원작 외에는 책도 신문도 읽지 않겠다는 그는 “한 대목 등장하는 엑스트라도 허투루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긴 여정을 마치면 조금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잔잔한 웃음이 있는 동네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다고 농사 사랑을 이어갔다. **★**



